

美 특수정찰기 동해 정찰...北 특이동향 주시?

등록 2019.11.05 09:06:38



【오키나와=AP/뉴스시스】가데나 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RC-135-S 코브라볼.

【서울=뉴스시스】박대로 김성진 기자 = 미군 정찰기가 5일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.

군용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'에어크래프트스팟'(AircraftSpots)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-135S(코브라볼)는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해 상공을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.

이번 비행은 기존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작전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려는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. 앞서 이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전후해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는 양상이 반복된 바 있다.

7월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코브라볼이 동해 상공에서 감시활동을 전개했다.

코브라볼은 정밀 레이더와 광학측정 장비 등을 갖췄다. 이 기종은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 등을 추적한다.

코브라볼은 앞서 6월7일 미 전략사령부가 위치한 미국 네브래스카 오펀 공군기지에서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됐다.

daero@newsis.com, ksj8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